

약용 개나리 품종 첫 선발

의성약초시험장, 올10월부터 농가에 보급 전망

약용 개나리(연교)가 국내에서 처음 선발돼 올 10월부터 농가에 보급될 전망이다. 경북도농업기술원 의성약초시험장은 국내에 자생하는 개나리중 드물게 꽃핀 뒤 열매 맺히는 것을 전국 20여 곳에서 수집한 뒤 열매가 많은 품종을 골라 생산력, 지역적응성, 약효성분 등에 대한 실험을 거쳐 7년만에 새품종을 개발하는데 성공해 오는 10월부터 농가에 보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험장이 개발한 약용 개나리 '연정'은 뿌리 활착이 강해 정원·길·길둑등의 유희지를 이용해 어디서나 재배할 수 있고 열매는 9월말부터 이듬해 봄까지 수확할 수 있어 유희 노동력을 활용하는데도 좋다는 것. 연정은 1평당 1~2포기씩 꺾꽂이로 재배해 3년 뒤부터 본격 수확할 수 있다. 수분이 많거나 유기질이 많은 곳은 웃자란 현상이 발생, 열매가 제대로 달리지 않고 만식장해가 우려돼 한 그루당 가지를 15개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약용 개나리는 해열·해독·이뇨작용이 뛰어나 말린 열매를 달이거나 가루로 빵아 먹기도 하고 달인 물



로 습진과 종기 상처를 닦아 내는데 많이 쓰인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국내에서 생산이 안돼 전량 중국에서 수입해 쓰고 있다.

이 시험장 김재철 농업연구사는 "이번에 개발된 연정은 빛깔이 노랗고 꽃피는

기간이 길어 꽃꽂이 등 관상용으로도 쓸 수 있고 10a당 열매를 100kg씩 생산해 100만원 정도의 부수입을 올릴 수 있어 농가소득 향상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0576-832-9669)

복령 종목양면접종 새기술 개발 나무와 종균등 재료비절감 효과

복령 수확량을 크게 늘릴 수 있는 종균접종법이 개발됐다. 강원도농업기술원은 종목에 복령종균을 접종, 한 달 정도 키운 다음 소나무에 접착해 재배하면 수확량이 1평당 21kg으로 꺾질을 벗긴 소나무 단면에 종균을 접종, 곧바로 땅에 묻어 재배하는 기존방법의 6.7kg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나는 새로운 복령 재배 기

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종목양면접종이라는 이 방법은 종균 활착률이 높아 나무와 종균등의 재료비를 절감할 수 있고 종균상태를 농가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기존 재배법은 빗물에 종균이 씻겨가거나 잡균이 많이 발생해 종균 소요량이 많지만 수확량이 적고 품질도 떨어졌다.

종목양면접종법으로 복령을 재배하려면 꺾질을 벗긴 소나무를 15~20kg 길이로 자른 다음 내열성 PP필름에 넣고 살균한다. 그런 다음 절단면에 종균을 접종, 한달 정도 키운 후에 소나무 양쪽에 접착시켜 땅에 묻는다. 이때 모양은 모래가 많은 사양토가 좋다.

(문의:0361-258-5750)

'마' 덩이줄기 잘라 키우면 30~40%증수

마는 덩이줄기를 잘라 재배한다면 현행 영여자나 덩이줄기 윗부분 재배때보다 최고 43%가량 수확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북도농업기술원은 마의 덩이줄기(괴경)를 절단해 흠살이 깊고 부드러우며 물 빠짐이 잘되는 모래참흙이나 참흙에서 재배한 결과 단마는 10a(3백평)당 최고 43%,장마는 30%까지 수량이 증대됐다. 또 단마는 60cm, 장마는 80cm 정도로 깊이같이해 파종하면

자연산삼을 인공배양한 산삼차 시제품이 나왔다. 산림청은 지난해 10월 강원 양구에서 채취한 90년 생 산삼을 이용, 복제 인공증식에 성공한데 이어 배양산삼으로 산삼차 시

는 너무 고가였기 때문에 산삼의 유용 약리성분과 그 효과 규명은 미미한 실정이었다.

임업연구원 손성호 박사는 "배양산삼을 대량 생산할 경우 새로운 의약품

산삼차 나온다

자연산 복제 인공증식 농축액, 과일, 분말3종

제품을 개발했다.

산림청이 이번에 개발한 산삼차 시제품은 농축액, 과일, 분말등 3가지 형태이다. 배양산삼의 성분은 자연산삼과 동일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국가 식품 안전성 검사결과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자연산 산삼은 일반국민이 구입하거나 산업적으로 제품화하기에

개발, 건강식품으로 활용할 잠재력이 매우 크다"며 "앞으로 산삼의 약리성분을 분석하고 이를 식·의약품 및 건강제품으로 개발, 민간에 기술을 이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오는 2001년부터 일반 국민들이 산삼차를 마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뿌리에 혹처럼 돌출부가 생긴 마의 발생이 줄어 마의 상품성이 크게 향상됐다.

마는 4월 상순부터 파종하는데 현재 대부분의 농가들은 줄기의 잎겨드랑이에서 채취한 영양체(영여자)를 이용하거나 이 영여자를 재배해 얻은 덩이줄기의 머리 부분을 종균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수확량이 적을 뿐만 아니라 상품성이 낮은 마가 상실되고 있다.

종자관리소 홈페이지 개설

농촌진흥청 종자관리소는 종자산업에 관한 정보를 수록한 인터넷 홈페이지(www.seed.go.kr)를 개설했다. 이 홈페이지에는 종자에 대한 공지사항 안내와 종자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동향, 종자산업법과 하위법령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자연산 더덕 싹틔워 삼림지 재배 전북도 농업기술원 진안약초시험장

자연산과 같은 품질의 더덕을 삼림지역의 유희지를 이용,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기술이 개발됐다. 전북도농업기술원 진안약초시험장은 자연산 더덕을 채취해 이듬해 싹을 틔운 뒤 국내에 폭넓게 분포하고 있는 활엽수나 침엽수등 삼림지역에 아주 심어 3년 후부터 본격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시험장에 따르면 굵기 0.7mm의 자연산 더덕을 채취, 1년 뒤 싹을 틔워 30X30mm로 옮겨 심은 결과 입모율 73%,수량 210kg을 확보해 일부 점뿌림 재배보다 입모율이 크게 향상된 데다 수량도 크게 늘어났다.

특히 삼림지역 재배를 통해 자연산과 같은 품질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년 동안 재배해도 이어짓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일반 밭 등 평지에서 재배는 1년만에 많은 수량을 생산할 수 있으나 더덕 특유의 맛과 향기가 없



어지고 이어짓기 장해가 심해 이듬해에는 다른 포장으로 다시 옮겨 심는 번거로움이 있다. 현재 더덕은 자연산이 600g당 1만2천원으로 재배 더덕보다 2~3배 비싸다. 진안약초 시험장 입주락 농업연구사는 "삼림지역에서 재배한 인삼의 경우 주성분인 사포닌이 13.5%로 일반 노지재배 것보다 2배 이상 높았다"며 "앞으로 더덕에도 이같은 효과가 예상돼 식용뿐 아니라 약용더덕 생산에도 큰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문의:0655-433-7451)

약초를 이용한 화장수 만들기

[삼백초 화장수]

삼백초는 피부를 부드럽게 하고 모세혈관을 튼튼히 하며 피부를 촉촉하게 하는데 효과가 있다. 알코올 농도를 70% 정도로 만들어 사용하면 여드름이난 부위의 소독이나 소염 효과가 뛰어나다.

[만드는법] 1.삼백초, 소주를 준비한 다음 삼백초는 깨끗이 씻어 말린다. 2.그릇에 삼백초를 넣고 소주를 자작하게 붓는다. 3. 뚜껑을 닫고 실내에 2주 정도 둔 후 갈색 병에 담아 냉장고에 넣는다.

얼굴 전체에 바르려면 생수와 삼백초 화장수를 1:3비율로 섞는다. 화장수 350g에 꿀 1큰 술을 넣어 사용하면 좋다.

[쑥 화장수]

쑥은 가장 많이 이용되

는 미용 약초이다. 쑥에는 피부를 촉촉하게 하는 접액질, 붉은 피부의 모세혈관을 개선하는 플라보노이드, 비타민 등의 유효성분이 포함돼 있다. 또 염증을 진정시키는 효과와 피부 재생을 촉진시키는 효과,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효과 등이 있다. 따라서 쑥을 이용 미용재료로 쓰면 피부가 촉촉해지고 부드러워지며 피부결이 섬세해 진다.

[만드는법] 1. 쑥, 꿀, 백반, 알코올을 준비한다. 2. 약쑥을 깨끗하게 씻어 소쿠리에 건진다. 3. 끓는 물에 쑥을 넣고 뚜껑을 덮어 약한 불에서 20분 정도 끓인다. 4.불을 끄고 쑥의 20% 분량만큼 백반을 넣은 후 뚜껑을 덮은 채 서서히 식힌다. 5. 진하게 우려낸 쑥물에 같은 양의 알코올을 넣고 섞는다. 꿀은 1큰술 정도 넣으면 된다.